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 서른번째.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6장 4절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에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그 율법에 진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 했습니다.

모든 율법은 그 사랑으로 수렴이 되고 에스카톨로스코드란테스 (escato los cuadrantes)가 이제 마지막 넷 중에 하나 그게 하나가 딱 채워지게 되면 이제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수렴이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흘러서 거룩한 사랑의 계보를 이렇게 잇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사랑은 그렇게 진리를 가진자들에 의해서 역사 내내 흘러내리고 있는거고 이렇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거죠, 그 사랑이. 그건 사랑이 되는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역할이기도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발과 손이 되는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 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구원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예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진리를 논하고 있으면 그건 안된다, 가 47절의 내용이예요. 거기에 ‘형제’ 라고 이제 개혁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필로스 (fivlo)예요. 데오빌로에서 테오 필로스 (qeov - fivlo) 그러죠? 하나님의 친구. 친구예요, 친구. 진리가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친구끼리만 문안을 하면 사랑이 흐를 수 없잖아, 예요. 지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 해놓고 이건 흘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끼리 문안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랑이 흐를 수 없잖아, 그래요. 그리고는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한다 그러는데 그 단어가 그냥 세리예요, 위엣절에서 공부한 세리. 세리는 이같이 하지 않아 그런다고요. 세리는 이같이 하지 않아. 근데 그 세리, 텔로네스(τελώνης : telónés)가 뭐라 그랬죠? 성전의 세를 거두는 자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게 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세는 뭐예요, 그거 받아서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유지하는게 성전세였잖아요, 그죠? 그 성전세를 거둔거란 말이죠. 그 성전 세를 거두어서, 그러니까 그 성전을 완성하고 유지하는게 뭐예요? 우리예요, 성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도를 성전세라 그런단 말이예요, 사람을. 그렇게 성전세를 거두는 너희들, 그 텔로네스, 세리들은 그같이 하면 안돼, 그래요. 왜? 거두어 들어야 되니까. 그 말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문안, 그 아스파조마이 (ἀσπάζομαι : aspazomai)라는 말은 ‘안녕을 묻다’ 라는 말이죠? 안녕을 묻다. ‘안녕’은 뭐예요, 여러분? ‘안식이 완성되어 자유가 된 상태’를 ‘안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건 그냥 피상이예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죠? 그 ‘안녕하세요’는 내가 그 사람이 ‘안녕’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전해주고 그걸 확인할 때 하는 인사예요. 내가 안식에 관한 말을 전해주고 안녕하세요? 그걸 잘 지키고 있으세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안녕의 상태이십니까’를 묻는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녕하세요” 하면 안돼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만나면 “굿모닝” 하는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없는 피상이죠, 그거는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이 단어를 써요. 내가 ‘문안한다’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줬잖아. ‘안녕해?’ 라고 묻는거예요. 그 단어들을 꼭 쓴단 말이죠. 그 문안은 이제 자꾸 아래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필로스 philos)끼리 문안하고 있으면 그게 흐를 수가 없잖아, 세리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텔로네스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가 47절이예요.

그렇게 ‘안녕’에 관한 말을 전해주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진리 진리” 하는자들 있죠, 그러한 피상에 불과한 문안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내용을 얘기안해줘. 그렇잖아요. 그런 얘긴 다 한다니깐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식에 도달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는데 내용을 안줘.

그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 2장 14절.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겉옷이 없고 먹을 하늘의 양식이 없다, 란 뜻이예요.)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 (이 있니 이게 그말이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구원받으세요” 이야기는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지 내용을 안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거. 그리고 지 할 얘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 사람이 다 들었는데 아직도 추워. 옷이 없어요. 그가 나에게 겉옷을 안 건네줬어. 하늘의 양식도 안 줬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평안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 이야기 하는거예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니까 여기서 행함은 뭐죠? 진리를 전해주는걸 이야기하는거예요. “구원 받으세요,” “자유 하세요,” “안식하세요” 하면서 그가 진짜 겉옷을 입고 그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을 해주는 거. 이걸 행함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건 뭐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예요. 그거는 귀신들도 갖고 있는 거라 그러죠? 거기서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뉴마 다이모니온 (pneuma-daimonion), 악한 말. 그게 거짓말이란 뜻이예요, 귀신이란건. 악한 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거 나는 말로만 하지 않을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건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줬을 때 그때 보여지게 될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피상교하지마. 함부로 “안녕하세요” 묻지마. 그렇다고 인사하지 말라는거 아니예요. 함부로 그런거 이야기 하지마 이야기 할려면 내용을 얘기해줘, 이런 말이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품도 변화도 없고 착한 일도 안하고, 그거는 귀신들도 하는 믿음이야 이런말이 아니예요. 정말 그렇게 헐벗은 이들 푸토코스 (πτωχός : ptochos)한 자들을 만나면 겉옷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진리의 겉옷. 그리고 하늘의 그 양식, 그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짜 배부르게 만들어야지, 이런말이예요. 그거 없으면 너희들 믿음 없는거야. 그렇게 전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러는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흘려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 하는거예요.

그렇게 모든 계명과 말씀을 이제 사랑으로 깨달아서, 에스카톨로스코드란테스 (escato los cuadrantes )로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이들을 ‘온전하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5장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말이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너희들도 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돼, 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의 권능까지 가지라는거예요? 그거 온전함이잖아요. 무소부재의 기능을 획득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건 다 못하는거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 면만 목적삼아 그 온전에 도달할려고 노력해” 이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든거예요? 인간이 만든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를 논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다니깐요. 그리고는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해” 이런말이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제안을, 구분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냥 ‘온전해’ 라니깐요. ‘그것처럼 온전해’ 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 무소부재의 기능, 이런것도 못가져.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온전함, 그건 감히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어니야. 무슨 말이예요? 어떻게 온전하라는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에 이르는 수준을 정해놓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면 ‘온전’하다고 너희들을 하늘의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에서 공부 할 그것을 공부하여 대학에 갑니까? 여러분, 대학에 갈 때 고등학교 수준의 것을 가지고 대학에 가요. 대학에 가는데, 그 대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것을 해내면, 그러면 너는 대학에 넣어줄게. 너 대학생, 이라고 이야기 해주는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온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땅에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땅의 수준의 온전을 제시해주고 그거에 도달하면 하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줄게 이런말이예요. 그럼 그 ‘온전’이 뭐냔 말이예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테오 (αἰτέω : aiteo). 빚 갚아! 하나님께 뭘 “구하라” 는 전부 빚 갚으세요, 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야할게 있단 말이예요, 그분이 먼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걸 성경이 빚이라고 한다니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이 단어가 전부 아이테오 제테오 ( ζητέ́ω : zeteo) 가 뭐냐면 “빚 갚으세요” “감추어진거 빨리 주세요,” 이런말이예요. 그거 알고 달라는 이에게 누가 안 주겠니, 다 줘! 이 말이예요. “구하라”에서 그 “구하라”는 다른 구하라가 아니란 말이예요. 왜 구한다고 구하면 다 준다 그래놓고 나는 하나도 안 줘? 안줘요, 그런거는요. 그 구하라가 아니라니깐요. 그 빚, 사랑의 빚, 그 사랑, 그 진리 흘려주는 그 빚, 그거 외에는 다른 빚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거 요구하지 말라는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진리를 흘려 주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다 이루었대요. 뭐예요? ‘온전’이예요 이게. 다 이루었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게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당연히 악을 행치 아니하죠. 악이 뭐예요? 거짓 ‘말’을 주어서 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거예요, 해꼬지 하는 그런게 아니라 단순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당연한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래요. ‘온전’이네요? 율법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어 하늘의 것 하나님을 알게 해 주기 위해 주어진, 외적으로 주어진 호코스모스(ho cosmos)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늘을 알면 복이고 그걸 문자로만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걸 ‘죄’ 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그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아서 안 그 사람. 그 사람이 뭘 안거예요? ‘그 율법’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안거아니예요. 온전한 그분을 안거네요? 그 사람을 ‘온전하다’ 그러는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온전한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주신 그 하나님에대한 설명이지만)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온전한게, 그럼 그게 ‘온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거, 그게 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온전’이야 얘기해 주는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로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그 ‘온전’을 너희에 담아 너희도 ‘온전해’ 라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인격적 성숙을 이루라 이런말 아닙니다.

그렇게 그 말씀의 진의를 아가페 사랑으로 깨닫고 그것을 흘려주는 이가 온전한 자라면 그가 그 사랑의 행위 (그 말씀을 이제 ‘흘려주는’ 그 행위)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다른말로, 그걸 전해줄 때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전해 주어야 하는 가, 를 이야기한게 6장 1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걸 ‘구제’의 이야기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보면 6장 1절에 처음 시작이 프로쎄코 (προσέχω : Prosecho) ‘주의하라’ 로 시작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6장 1절 이하의 구제 이야기가? 주의하라! 구제할 때,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을 흘려줄 때, 이거 주의 해야돼, 이렇게 하면 안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쎄코 (주의하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단어가 호엘레모수네 (호 - ἐλεημοσύνη : 호 – eleēmosýnē) 예요. ‘구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건 일반적 ‘구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 ‘구제’를 가리키는 말이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어서 그 대상을 그 영적 빈곤함, 영적 추위, 영적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걸 엘레모수네 (구제) 라 그래요, 그걸. 단순히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거주고, 입을 옷 주고 그런 이야기하는거 아니예요. 의의 겉옷 주고 하늘 생명양식을 주어서 하늘적 존재로 살려내는 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제’ 라 그래요. 그 엘레모수네의 구제에 의해서 그 대상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요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합일이 될 때 고걸 에이레네 (εἰρήνη : eirḗnē)라 그래요. 같은 어문이예요. 에이레네가 뭐예요? 평강. 평화라 그래요. 엘레모수네와 에이레네 이게 이렇게 연관이 있는 단어란 말이예요. 그니까 이런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지고스 (ζυγός : zugos) 라는 멍에 아래에 항상 두 마리의 소를 묶어요. 멍에를 꼭 두 소 위에다가 얹어요. 그리고는 이 두 소가 ‘같이’ 밭을 갈고 ‘같이’ 짐을 나르게 한단 말이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그 멍에예요. 근데 하늘의 소가 자기 멍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멍에 있다 그러죠? 멍에를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같이 멍에를 질 놈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거예요. 내 멍에 져라.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건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 쉽고 가벼워? 이분이 주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니들이 율법 지킨다고 그러한 어떤 행위로 니들이 나서면 그건 무거워. 어려워. 그러는거죠. 그러니까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 져라 그러는거죠. 그렇게 소가 둘이 짝이 되어서 멍에를 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곳으로 가면서 일을 할 때 이걸 형상화 시켜 만들어놓은 글자가 에이레네예요. 그것이 평강이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걸 엘레모수네 (구제)라 그래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이런거 하라는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거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런거 하라고 이야기 하는거 아니예요. 그건 그냥 인지상정으로 하세요. 사람이면 하는거.

따라서 6장 본문의 이야기는 진리를 받아서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주의해야 할 이야기. 고게 확실해 진거죠? 엘레모수네라는 고 단어 하나로. 자, 그 구제에 관한 구절을 몇개 찾아보고 넘어가죠.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38.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9.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나 너희 속은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42.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 지니라. 43.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것을 기뻐하는도다.

##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시면서 손을 안 씼으셨던 모양이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어요. 다우마조 (θαυμάζω : thaumázō) ‘이상히 여겼다’ 라고 되어있는데, ‘깜짝 놀랐다’ 라는거예요. ‘뭐 저런게 다있어?’ 이런 말이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뜻이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거든요. 근데 손을 안 씼어? 그러고 밥을 먹네? 그런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 지킴에 그러한 일은 겉의 일이야, 라 그래요. 겉을 깨끗게 하는 일이다. 그게 겉의 일이야. 근데 겉을 깨끗게 한다고 속까지 깨끗해지지는 않아, 그래요. 그러면서 ‘속을 깨끗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겉은 뭐고 속은 뭐예요? 겉은 지금 율법이예요 보시다시피. 율법의 그 행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속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속이라는 내용에 이르지 못하고 겉의 것만 할 때에 이 속, 하나님은 속만 보신다 그랬는데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게 속이잖아요. 근데 겉의 것만 아무리 깨끗게 하면 하나님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뜻이예요. 먼저 속을 깨끗이 하면 그 겉의 거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겉만 깨끗하게하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토장한 무덤’이라그래요 그거를, 주님이. 그건 무덤이야 썩은 물만 나오는 무덤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드시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러죠? 야 겉을 만드신 이가 당연히 그 내용인 속을 같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속은 모르고 왜 겉의 것만 갖고 난리야, 그러는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혀 너희들 깨끗하다고 안쳐줘. 거기 예를 하나 더하시는게 십일조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여기에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채소, 채소는 배추 파 마늘 이런게 아니라 허브예요. 이게 다 뭐냐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쓰는 것들이예요. 근데 왜 일부러, 이것 말고 많은 십일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왜 요런것만 이렇게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고런것만 예로 들으셨나면 지금 율법을 이야가히시기 위해서 그래요. 겉의 것. 지금 겉에 것 속에 것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겉의 것 이야기하기 위해서 박하, 온양, 채소 라는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있다 그러죠? 내용은 뭐라그래요? 의, 디카이오수네, 자다크 그리고 사랑이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 죠? 그러니까 십일조라는 것의 내용은 의와 사랑이다. 근데 너희는 그거를 ‘버렸다’ 라고 그러는데 ‘소멸시키다’ 라는 뜻이예요. 겉의 것을, 십일조, 율법적, 겉으로 보이는 십의 하나를 드리는 그걸 하기 위해 진짜 그 내용을 소멸시켰다 라는 말이예요. 그걸 하느라고 소멸시켰다. 자, 그런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럼 구약이예요. 율법의 시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되요? 속옷 (율법)으로 겉옷을 깨달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의와 사랑을 배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근거구절로 해서 오늘날도 십일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예요.

속옷을 갖고 겉옷으로 덧입으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당연해요. 원래 ‘십일조’ 라는 말이 ‘십의 대표’라는 말이예요. 십의 대표. 그걸 그냥 한국 말로 ‘십일조’ 그러니까 십 중의 하나는 하나님것, 반드시 드려야 할 것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거지. 원어는 ‘십의 대표,’ ‘십의 대표성,’ ‘십의 그거 그 내용’ 이라는 뜻이예요. 당연히 십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라는 그 단어도 원어는 ‘그 계명의 그 십’ 이라는 말이예요. 열가지 계명이 아니예요. 그 계명의 그 십. 십이라는건 영부터 구까지의 ‘열 개’를 이야기해요. 그걸 조합하면 수없이 많은 율법이 나와요. 그 계명들의 그 십. 그 말은 그 수없이 많은걸 내가 이 ‘열 개’로 설명해줄게. 다른 말로 이 ‘열 개’가 바로 ‘그것들.’ ‘그것들’을 다 함축하면 이 ‘열 개’야 라고 이야기하는거예요. 근데 그 ‘열 개’는 바로 이 ‘하나’야 가 십의 대표, ‘십일조’ 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냥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삥을 뜯기 위해 만들어 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십일조고. 성경이 말하는 십일조는 그 십의 대표라는 말이예요. 그 십의 대표성. 그 십이 하나야! 그게 뭔줄 알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의와 사랑이야 그게. 의와 사랑은 누구? 하나님이라니깐요. 그러니까 그걸, 그 계명을, 말씀을, 성경을, 말씀을, 예수를, 그 것 그 사랑과 의로 내가 깨달아 알아서 내 안에 갖게 되면 내가 십일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 그 우리가 드려져야 할 그 자리에 속전으로 드려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여야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내가 살렸으니까 레위 지파 그들을 장자가 할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이 장자의 속전으로 주어, 가 십일조 였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쳐져야 할 그 자리에 바쳐지고 속전으로 드려진 십일조가 되셨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예요. 우리가 바로 그걸, 그 율법을 완성하여 내 안에 사랑으로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십일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십일조가 ‘되어라’ 그래요. ‘바쳐라’ 가 아니라니깐요.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니깐요.

말라기 3장 8절 보세요.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예요.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이예요.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나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도둑질 했어. 그래놓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도둑질인데 그 도둑질이 뭔줄 알어? 너희들이 말한 십일조와 헌물이야.

9. 너희 곧 온나라가 ‘나를’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 성전에 들여 나의 집에 (성전에) 양식이 (진짜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걸 내 안에 갖게 되면 내 안이 복으로 꽉차는거죠? 그 이야기하는거예요. 십의 일조를 한푼도 빠짐없이 록펠러처럼, 록펠런가? 누구예요, 그 인간. 하여튼 회사까지 만들었대잖아요. 십일조 계산하느라고. 왜? 그 회사 유지할라고요. 혹시 한 푼이라도 빼먹으면 하나님이 그거 칠까봐. 그걸 십일조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계속 부어줄거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 말은.

율법이라는건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의와 사랑을 버리고 그 율법의 행위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자들은 죽어요. 마땅히 죽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마아세르 테루마 (Maaser Terumah) 예요. 십일조와 헌물. 십이라는 것의 대표로 하나님의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아세르가 남성 단수고 ‘그 제물’이라고 번역이 된 테루마가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십이 (그 십이, 계명의 십이) 하나의 제물로 드려지게되면 (율법의 완성으로 드려지게 되면) 니들은 살아 그런데 니들은 그걸 십일조와 제물로 지금도 율법으로 드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복을 받니, 이런말이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십일조예요. ‘십이 하나의 제물에서 완성되다,’ 이게 십일조와 헌물, 마아세르 테루마 예요. 근데 그걸 껍데기로 그냥 제물로 계속 드리고 희생 제사 드리고 십일조로만 (십의 하나로만) 계속 드려버리면 그러면 니들이 복 없는자들이야 이런말이예요. 십의 이조 하세요. 재정집사님한테 혼날 거 같애. 제가 십일조 하지 말랬다 그래서 십일조를 안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 할게요. 십의 이조씩 하세요. 그럼 할까요? 꼭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안하면서 꼭 내 핑계를 대. 그리고 목사님이 인간은 절대 인격이 변하지 않는대 그러니까 난 그냥 지금 이대로 살거야, 그러면서 꼭 제 핑계를 대가지고 항의 메일이 오게 만들어요, 꼭. 제가 언제 그렇게 막 살으라 그랬어요.

자 그걸, 그걸 주님이 의와 사랑 이라고 하는거예요. 그 십일조가 나올 때 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멜기세덱 (melchizedek). 말라크 쩨데크 (Malach Tzedek) 합성어거든요. 말라크 (Malach)가 뭐예요.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쩨데크 (Tzedek)는 의, 평강. 평강의 선지자, 평강의 사자, 평강의 왕. 그렇게 여러분이 의를 알아 의의 선지자, 의를 전하는 이들이 되면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되는거래니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러는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미성숙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 못해주겠다 그러는거예요.

그게 되면 (멜기세덱, 말라크 짜다크가) 되면 여러분이 십일조가 되는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 ‘그 십의 그 대표,’ 그거! 그게 되는거예요. 계명의 완성. 사랑이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그 온전한 십일조를 내 창고에 한번 들여봐. 그래서 내 집에 진짜 그 하늘양식이 꽉 차게 만들어봐. 내 집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성전, 나. 여기에 그 진리를 양식으로 채워봐. 그게 복이야. 그게 말라기의 예언이예요.

그렇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제대로 온전하게 넘겨주는 걸 구제 (엘레모수네) 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의 것’ 으로 구제해 그러잖아요. 그게 엘레모수네예요. 왜 밖의 것 가지고 난리야. 너희 ‘안의 것,’ 그 속으로 구제해 그러잖아요. 그거 전해, 그러는거예요. 그거 전해. 십일조? 그래, 그거 닥달해갖고 돈 삥뜯는 그런거에 착념하지 말고 그 속 그 내용을 얘기해줘. 이게 ‘안의 것,’ ‘속의 것’으로 전해줘 이런말이예요. 구제 해, 엘레모수네 해. 이런말이예요. 이렇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제대로 온전하게 넘겨주는걸 구제 (엘레모수네) 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는거죠. 그 때 ‘주의해’ 이거예요. 그 때 주의해. 근데 주의 도 문제죠. 주의하라고 한다그래서 주의 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여기 삼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삼가가 무슨 뜻이야? 삼가 하라는 뜻이예요? 아니면 뭐. 이거 호라오 ( ὁράω : horáō) 거든요. ‘제대로 깨달아’ 이런 뜻이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대로 깨달아, 호라오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 그러면 주의할라면은 뭘 먼저 해야되요? 그 율법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호라오 해야 돼요. 본다 라는 단어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헬라어에. 옵타노마이 (ὀπτάνομαι : optanomai), 에이돈 (εἶδος : edios), 블렙보 (βλέπω : blepó), 호라오라 그랬죠? 옵타노마이는 그냥 눈으로 보는거. 옵티컬, 안경점에 써있는거. 에이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는 것. 성전이 저기 서있어. 하나님이 보라고 준거죠? 그건 보는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블렙보. 먹어 ‘보다,’ 입어 ‘보다,’ 씹어 ‘보다.’ 이렇게 시험하는거, 자꾸. 보는 훈련하는거 블렙보. 그래서 ‘아 이게 그거예요?’ 안거, 그 보는 걸 호라오 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라오를 먼저 너희들이 계명으로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말씀이 뭔지를 알면 너희들은 주의할 수 있어 뭐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11절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깨달아야 주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으니까 ‘주의’ 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되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하여 전해줄 수 있다니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주의’ 하게 전하다가 같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주의’ 가 안되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구제할 때 조심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세요. 본문 1절을 다시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에게 상 받을라면 사람 안보는 데서 착한일 해. 이런 말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행하는 사람들 있죠? 상 받을라고. 근데 못내 아쉽죠? 누가 안 알아주면. 그냥 하나라도 어떻게 힌트라도 주고 와야돼. 근데 끝까지 몰라주면? 삐져요. 이게 그런 말일까요? 진짜 상 받을라면 니들 남 안보는데서 착한일 해. 그런말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다’ 라고 번역이 된 데오마이는 ‘밖의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표피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내용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성전의 표피적 의미인 율법만 보는 거를 데오마이(스트롱 2300 theaomai)라 그래요. 그냥 보는거. 보이는 거. 보이는 것만 보는거. 그 안의 것, 속의 것을 못보는 거죠. 그걸 데오마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사람이 없으되. 이게 데오마이예요.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난 형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아담, 모세, 다윗, 바울,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못 봤어요. 그 말이예요. 어느 때에고. 아 옜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잠깐 보여줬다가 신약시대에는 안 보여주는 이런게 아니예요. 어느 때에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데오마이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뜻이예요.

말씀으로 보고, 성령을 통하여 보고, 그걸 ‘봤다’ 라고 하는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진자가 그 진리를 전할 때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거지. 그 하나님을 보는게 아니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라니깐요. 하나님은, 영은, 인간의 눈과 인식 속에 포착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데오마이 한 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거예요. 그걸 봤다라고 이야기하는거죠.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죠. 못보니까. 육신을 입혀서 아버지인 진리를 넣어 보낸 거, 그 예수는 봤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못 봤다 그러는거예요. 그렇게 보는거. 근데 그 예수 봤다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그 예수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예수를 보고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의를 전할 때, 사랑을 전할 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그냥 보이는 대로 전하고, 보이는 어떠한 신비적인 기적이나 이런 걸로 전하고, 착한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제시해서 전하고, 의를 전할 때 그렇게 데오마이로 주지 마! 이런 말이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이야기 해줘, 이런 말이예요. 사람 보는데서 얘기하지 말라는게 아니라니깐요. 사람 보는데서 착한일 하지마, 이런말이 아니란 말이예요. 껍데기로만 전해주지마, 이런 뜻이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르칠려고 하지마, 이런 말이예요. 의를 전할 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임을 당한다’ 라는 말이 하나님을 보면 그냥 드라큘라가 햇빛에 녹 듯 이렇게 된다는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자는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다, 라는 뜻이예요. 산자라면 그렇게 얘기 못한단 얘기예요. 못 보니까요. 그렇게 표피적으로 보는거, 내용을 모르고 나타난 것으로만 보는 걸 데오마이 라 그래요. 진리를 전하여 구제할 때 그 ‘겉의 것’ 만 보여줄려고 하지마. 겉의 것 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밖에 못 전해 주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잖아 그러면 그 ‘속의 것’ 을 전해줘야지 이런 말이예요.

신사도운동이니 신비주의니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예요. 그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일어나야돼요. 금가루 떨어져야 된대니까. 주님은 정작 데오마이 하지마 이런다니깐요. 보이는 것으로 전해주지마. 그 사람들 이외에는 괜찮냐? 아니요. 대부분의 교회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리고는 이게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 한다니깐요. 주님은 데오마이 하지마 이랬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고 이걸 마음으로 가지라 그래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죠. 천지에 충만하다는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이 사람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를 연구하면 우주가 보여요. 형식과 그 원리가 똑같다고요. 그럼 뭐예요? 천지가 하나님을,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 처럼 나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모든 게 다 진리라니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다 벗고 갈 거라니깐요. 그 진리, 그게 다 충만이예요. 모든 게 다 진리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진리로 갖게 되면 그 모든, 그 충만이신 진리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거죠? 물론 내 수준이지만. 그 때 ‘내가 충만하다’ 그래요. ‘내가 그 때 충만하다’ 그래요. 마음으로 가지래는데, 마음으로 갖지 못하고 이걸 표피적인 것으로 계속 행하는 거예요. 인류가. 역사가. 그리고 그걸 칭찬해줘요. 이게 옳다, 바르다, 깨끗하다라고 자기들끼리 박수 쳐준다니깐요. 그런 교회는 일간지에서도 다 칭찬해요. 본 받아야 할 교회, 본 받아야 할 목사. 모든 걸 버리고 농촌에 가서. 해야죠 물론. 근데 그건 진리 안에서 칭찬 받을 일이 아니라 그냥 인간 세상에서 칭찬 받을 일이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들 그래요. 마음에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볼려고 하고 그걸 행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전하고 행하는 자들은 상이 없대요. 상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 한 상. 내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고 거짓 없이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게 내 상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 없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되어 이 사랑을 흘려주게 되어 사람들을 용서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동참하여 하고 있냐고요. 이걸 상이라 그래요. 근데 껍데기만 주면? 상 없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7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당연히 못 믿어야 돼요. 보이는 걸 주었을 때 못 믿어야 돼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라는 말이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 했어)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것은 안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라는 뜻이예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 해놨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갔다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먹을 이야기로 좀 주세요. 아무도 못 알아 듣잖아요. 그랬더니 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그 말만 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내가 원리를 하나 세울게. 눈으로 보고 그걸 믿어서 고침을 받는 이는 없어. 근데 자꾸 데오마이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데오마이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데오마이만 해줘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인본주의 마찬가지. 개혁주의 진영도 마찬가지. 그래놓고 서로 박수치고 있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를 세워놓지 않았다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그 진리를 못 전해주고 엉뚱한 표피적 율법만 전하는 이들은 상이 없는거죠. 그게 1절이고 2절 보세요, 같은 말이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 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는 상 아니예요. 인간들의 상. 그 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려고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팔을 불어요? 회당, 수나고게, 교회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나팔을 분대요. 외식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배우’ 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대사만 읇조리는 것.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팔 불지마. 그렇게 나팔 불지마. 왜 그렇게 나팔을 불까요? 사람들에게 영광 얻을려고요. 그들은 상 받은 자 아니야. 못 전하니까. 내 일 하는거 아니니까 그거 상 아니야.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줄 수는 있어 그게 사람이 주는 상이야. 그 상 받은거야. 사람들 앞에서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선 상 없어, 이런 말 아니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세요. 테레비 이왕이면 방송국 다 불러놓고 쾌척하고 수재헌금 이런거, 그래도 상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상 받을려고 하는거 아니니까. 좀 뽀대나게 하세요, 할라면. 괜찮다니깐요. 꼭 그냥 억지로 숨어서 하고 나중에 삐져가지고 “왜 아무도 안 알아줘” 이러지말고 차라리 기분 좋게 하세요, 할라면.

자, 영광. 사람에게 영광하는자 영광을 얻을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 말은. 영광이라는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 (δόξα : doxa).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게 영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가 네게 영광 못 돌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영광을 주세요. 그러면 이 영광을 ‘아~ 이게 그거군요’ 하고 내 말로 내 삶으로 그 영광이 이제 그 진리가 나타나면 내가 그 반사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 영광은 엄연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리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아~ 그거군요’ 했을 때 이걸 독사, 영광이라 그러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못 한다니깐요. 그 말도 아니예요. 영광을 돌린다, 라는 건 그분을 영광 스럽게 한다 영광 스럽다 이건 빅토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글로리어스 (glorious) 이거 아니래니깐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걸 영광이라 그래요. 따라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예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로 깨달아져서 그로부터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살아 질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영광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라면 사람의 영광은 뭘까요? 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그랬습니까? 탐심. 에피뚜미아 (ἐπιθυμία : epithumia)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그 탐심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 탐심은 뭐예요? 선악 구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뭐예요? 서로 칭찬 해주고 칭찬 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광이 서로에게 돌려질라면 어떻게 해야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아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광이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더라.

자, 주께서 그러한 자들처럼 나팔불지 마 이랬어요. 나팔 불지마. 그 나팔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찾아 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1절.

크게 외쳐라. 바뀌지 말라. 니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말씀 전하는 거, 진리를 전하는 걸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설교할 때 쉬운 말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 하라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나팔이라는 거예요. 헛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귀가 먹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 보세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것이니

나팔을 불어라 근데 소리를 울려 불지 말아라? 이게 불래는 거예요 말래는 거예요? 네? 나팔을 부는데 소리를 울려 불지 말아라? 그 루아 (ר֫וּעַ : rua) 라는 말은 ‘소리로 귀를 먹게 하다’ 라는 뜻이예요. 히브리어 사전 있는 사람 스트롱코드 7321번 찾아보세요. ‘소리로 귀를 먹게하다’ 라고 쓰여 있죠? 나팔을 불어라,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귀먹게하는 그 말은 제발 전하지 마. 그 말이예요. 그 나팔 좀 불지마. 근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전부 귀가 먹어 있어. 그러니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귀먹은 자를 침을 발라 뚫어주시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귀먹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그것만 듣고 귀가 다 먹어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 듣고 있잖아. 내가 그 그 귀 뚫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나팔이예요. 주님이 그러는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나팔 불 때 외식하는 자처럼 나팔 불지마. 그러면 그들 귀 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가 그 나팔을 분다면 너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부는 거야.

사람들을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자존심, 인간 보편의 자존심을 독려해주고 그들을 선동해 주면 사람들은 굉장히 짜릿해 합니다, 여러분. 자, 올 여름에 우리 자비량으로 휴가 갈 돈 다 아껴서 저 중국 어디에 선교갑시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거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짜릿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허름한 월세방에 사시는데 에어컨도 잘 안나오는, 우리는 그 에어컨 나오는 집에서 그렇게 살면 됩니까? 건축 헌금 합시다. 그래서 지읍시다, 좀.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 할 것 같죠? 땡빚 내가지고 그거 내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줄 아세요? 아, 그리고 그것도 돈만 걷어가는게 아니라 지하실도 파게 삽주고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포크레인 하나 부르면 될 걸. 아니, 일하는 청년들을 말이예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아니, 이게 무슨 천리마 운동도 아니고. 그걸 교회에서 시키더라니깐요. 근데 그걸 또 해요, 인력 동원을.

그렇게 돌리면요.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사람의 영광 부추겨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하고 있잖아! 멋지다!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3회씩 실시 할 수 있니? 평생. 야, 어떻게 특별 새벽기도를 저 교회는 막 한 달씩 일 년에 여섯 차례를 하네. 다 그거 그냥 거다 어디다 뭐 어디다 이름 새겨준다고. 졸리고 그거 그냥 나가서 일도 못하면서 그걸 또 나가요. 부추겨주는거죠. 멋진 인간들이야. 너희들이야 말로 참 신앙인들이야. 딴 놈들 봐 다 자고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숨어있던 신앙심을 격발시켜준 그 분을 찬송하죠. 당신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좋아졌답니다.

나는 근데 요즘 반대 이야기를. 너 때문에 이렇게 게을러 졌다고 자꾸. 아니 내가 언제 게을르라고 그랬어요. 난 정말. 너무 억울해, 허 참. 아니 목사는 2시에 일어나는데 왜 내 말을 들은 이들은 게을러 지냐고요. 이상해. 엉뚱한 나팔소리를 들으면 귀가 먹어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런분들은 좀 삼가해 주셨어면 좋곘어요. 여기서도 듣고 이게 전혀 ‘아니다’ 라고 공인된 어떤 곳에서 또 듣고 있어. 여기서 귀먹고 와서 여기서 또 듣고. 또 가서 귀 먹고. 그게 가능 한가 나는 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어서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정 그렇게 할래면 왼손을 잠깐 어디다 두고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건 붙어있어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를. 여기에서 오른손 그리고 왼손이라고 번역이 된 덱시오스 (δεξιός : dexios)와 아리스테로스 (ἀριστερός : aristeros)는 그냥 오른편, 왼편이예요. 성경에서 그거는 좌편, 우편 이라는 말이 아니라. 옳은 편. Right side. Wrong side.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선조들도 왼손잡이는 패가지고 꼭 오른손 잡이를 만들었잖아요? 의의 오른손으로 막 이래가지고. 그거 성경을 다 곡해해서 그런거예요. 그런 말 아니예요. 옳은 편. 그른 편. 하나님에게는 오른편 밖에 없어요. 왼편 없대니깒요. 하나님의 왼편 이런말 들어보셨어요? 항상 그른 어떤 것을 이야기 할 때 ‘왼쪽’ 이라는 그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는 왼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때 그게 옳은 편, 그른 편 이라는 말이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가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니가 모르고 있어. 둘 중의 하나는 죽여 달라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거야, 그랬다니깐요. 니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너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한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오른 손 앞에다 놓고 에브라임을 왼 손 앞에다 놨어요. 근데 야곱이 어긋 맞겨서 왼손을 므낫세 위에 얹어버리죠. 그게 뭐냐면은, 옳은 손 (옳은 편)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진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왼편은 항상 삭제되어야 할 비진리를 이야기해요. 비진리 이러니까 뭐 나쁜거 이런게 아니라. 껍데기로써의 호코스모스 (세상). 그걸 이야기하는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מְנַשֶּׁה : Menashsheh : Manasseh)가 뭐예요. 제거하다. 없어지다, 소멸되다. 므낫세. 그리고 장남인데, 장자가 그렇게 되고 차자는 에브라임 (אֶפְרַ֫יִם : Ephrayim). 많은 열매를 맺다 예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가 요셉 (יוֹסֵף : Yoseph : “he increases”) 인거예요. 그게 오른편, 왼편의 이야기란 말이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이야기를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이게 덱시오스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른 손’ 이라 그랬죠?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하라. 뭐 이거 어떻게 해야돼? 덱시오스. 오른 편. 양들이 있는 편. 그 편. 진리의 편.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 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뭐 옳은 손. 그래도 무방해요.

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안했습니까, 그러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예요. 기독교 밖의 예수와 상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긴가민가해서 내가 뭐 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주장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노라하고 뭔가 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한게 있거든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성경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나는 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편이 그른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편은 뭐예요? 모든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게 뭐 있습니까. 그걸 양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 옆에도 왼편, 오른편이 갈리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이예요. 성경에 안 나왔다고요? 오른편이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있고. 양 편이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는건 율법, 가시와 엉겅퀴의 대장. 율법의 왕으로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요렇게 매달리는데 그 편, 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이 편 (오른편)으로 보는 자가 있고 이 편 (왼편)으로 보는 자가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보는 자는 “우리가 이렇게 죽는게 마땅합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왼편으로 보는 자들은 “내가 왜 죽어야돼? 니가 그리스도라며? 나를 구원해야지!”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 왼편이예요.

그러면 진리가 된 오른편 (덱시오스)들이 하는 일을,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흘리는 그 일을 왼편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 먹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거 해 그러는 거예요. 왼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거 하지마.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합시다. 목사의 정년을 3년으로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무슨 뭐, 조직은 어떻게 해야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건 본 받아야 할 교회라고 진리와 상관 없는 자들도 칭찬해줘요.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그래 그런거 해, 그런거 하는데.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그 수준에 그거 전하지마, 이런 뜻이예요. 왼 손이 모르는, 왼 쪽이 모르는 그거 먼저 해. 그거 해! 그게 진리가 하는 일이야. 고작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그런거, 그런거 갖고 저게 훌륭한 신앙인이야, 저게 올바른 교회야. 그따우것 하지마!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구제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구제 하는데, 엘레모수네 그거 하는데 그 엘레모수네, 왼손도 아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 왼편은 모르는, 율법주의는 모르는, 세상은 모르는 그 진리 전해 이 말이예요. 덱시오스예요, 그게. 양들만 아는 그거 해.

그리고 마지막 4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구제의 이야기 마지막 절이죠.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보세요. 개혁성경은 전부 그 뉘앙스로 번역해놨죠? 한 마디 했으면 됐지. 뭘, 또 구제하며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꼭 갚아 준다. 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휼을 전할 때 그 은밀한 것, 그 크로프토스 (κρυπτός : kruptos)는 ‘외적인 것’과 대조되는 ‘내적인 것’ 이라는 뜻이예요. 그 내적인 것으로 해. ‘안의 것’으로 해. 안의 것으로 해. 표피가 율법이라면 그 내용인 진리가 크로프토스예요. 내적인 것을 흘려주어, 이런거예요. 여기 보시는 이라고 번역이 된 블렙보도 이 블렙보가 하나님께서 보게하시는 봄이라 그랬잖아요. 네 구제함을 그 속의 것, 은밀한 것으로 해. 너의 아버지가 보게 해 주신 그 은밀한 것으로 해, 이런 말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은밀함을 못봐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블렙보, 보게 해주신 그 은밀함으로 구제해, 란 말이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뭘 넘겨준다 그래요.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안된 말이 거기 붙어있는데. 수 엔 호 파이네루 파네이루스. 네 안에 외적인 것을 분명한 것으로 넘겨줄거야 이런 말이예요. 파네이루스 (φανερῷ : phanerō). 그건 외적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크로프토스. 은밀한 것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은밀한 것을 싸고 있는 그릇. 그게 파네이루스예요. 그걸 하나님이 니 안에 내적인 것으로 분명히 넘겨주신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은밀한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밀한 것으로 구제 해, 이런 말이예요. 4절이. ‘안의 것’으로 구제해. ‘진짜’ 로 구제해 이런 말이죠.

그 단어가 여기서 쓰였어요.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 표면적 유대인이 파네이루스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 껍데기,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번역이 된 유다이로스 (Ἰουδαῖος : Ioudaios )는 ‘유대적인 것.’ ‘유다에 속한 것’ 이란 말이예요. 그 표면적인 그 유다에 속한게 뭐예요? 율법이예요. 옛 성전. 옛 이스라엘. 그 표면적 껍데기인 그 유다이로스 그건 진짜가 아니야. 안의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표면적’ 그게 나쁜거예요? 아니예요, 그걸로 내용을 알면 되는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게 크로프토스예요, 이면적. 그 은밀한, 감추어져 있는 그 유대적인 것. 감추어져있는 유대적인 것이 뭐예요? 율법, 성전. 그 은밀한 그것. 그것이 진짜 유다이로스야. 유대적인 것이야. 유대에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그러죠.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은 그람마 (γράμματι : grammati), 율법이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니들이 말씀 열심히 지켜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건 진짜 은밀한 것으로 하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법으로 전하면 안된다, 라는 그런 말이예요. 그 분명한 것, 그 외적인 것을 니들 안에서 보여지게, 보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그것으로 구제해. 그것을 흘려줘. 그게 엘레모수네 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야 진짜 평강이 오는거야, 그런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거 아니예요. 위무위(爲無爲) 라는 건, 우리가 무(無) 자를 자꾸 오해해서 그러는데, 무(無) 라는건 없음이 아니예요. 진짜 있는 것, 그런데 피조 세계가 감지하지 못하는 걸 무(無) 라 그래요. 그럼 무위(無爲) 라는건 뭐예요? 없을 무, 할 위. 그 하늘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위무위 라는건. 노자의 위무위도 그 말이라니깐요. 그거 진리를 해 이런 말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마. 목사님이 그냥 막 살아도 된대. 그래서 난 계속 이렇게 살거야 앞으로. 난 변화 없어. 기대하지마. 거기서 제 이름은 빼주세요, 제발. 그래서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무위 하시라니깐요. 진리를 행하시란 말이예요.

구제할 때 하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흘려줄 때 그걸 온전함이라고 하고, 그 온전함을 전해줄 때, 온전함의 행위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자, 율법.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걸 사랑으로 완성을 시켜주죠. 희생 제사 드리지마. 이게 살인하지마 라 그랬죠. 희생 제사 드리지마.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으면 희생 제사를 자꾸 드리게 되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게 되면 남편이신 그분과 관계를 잘못 맺은 거니까 간음을 계속 하게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게 되면 거짓 증거를 계속 하게되죠? 그러면 이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 이 세 개가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걸 ‘온전함’ 이라 그러고 그걸 사랑의 상태라 그러고 그걸 아는 걸 전해주는 걸 ‘사랑한다’ 라 그러고 그걸 올바로, 그 내용을 표피적인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것이 아닌 그 내용을 사랑으로 전해주는 그걸 올바른 ‘구제’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 그 오른 손의 것. 그거 해, 그런 말이예요. 구제할 때 무슨 뭐 은밀하게 숨어서 해야지, 그런것으로 부터 이제 자유하세요. 숨어서 하고 싶으면 숨어서 하고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진리가 되어 남을 구제 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이미 받은 자들 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상으로써의 그 일, 그 위대하고 엄청난 그 일, 입으로 삶으로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